

감각의 사이클-문명과 풍경

시간이라는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문명과 자연을 바라본다면, 그보다 인간과 자연을 구분 짓는다면 그 경계는 어디에서 만나고 헤어질까.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물질과 분리된 존재라면 그것이 머물 수 있는 경계는 어디일까.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물질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정신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실체인 것을. 자연과 인간을 갈라놓은 것은 문명이다. 아니 문명 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화려함과 편리함에 취해 인간 스스로가 자연과 하나인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고 차츰 그와는 다른 존재임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고희의 낡고 헤진 신발은 고단한 인간의 삶을 드러내는 기표이며, 그것이 현존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물질은 존재를 드러내는 매개물이지만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존재가 물질과 분리된 것이라면 정신과 물질을 매개하는 감각은 정신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정신과 물질과의 근원적인 분리는 인간 실존의 고독의 원인이며, 존재는 물질과의 분리를 선언하고 감각을 유령과 같은 부표처럼 여기저기 편리한대로 끌고 다니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세워놓은 도시의 한 모퉁이에 웅크릴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구두와 하이힐이라는 매개체를 놓고 존재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바로 김정범의 이번 작업이다.

고흐의 신발이 고단한 누군가의 삶을 대변하고, 실핏줄이 솟아나는 르네 마그리트의 신발 그림이 신체와 물질과의 경계를 허무는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면, 김정범의 신발은 <yellow landscape1>에서 보듯이 문명을, 인간을 하나의 자연의 풍경과도 같이 바라봄으로써 존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두와 하이힐은 그에게 있어서 한 개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이며,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구두와 하이힐은 그에게는 남성과 여성이며 동시에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현대 문명을 시간의 순환 고리에서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면 인간의 실존을 고독하게 하는 실체가 아니라 <yellow landscape1>과 같이 노란 색의 하이힐이 하나의 풍경을 자아내며 일상의 자연과는 또 다른 하나의 풍경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한 시선에서 보면 문명은 그에게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두와 하이힐이 하나하나 해체되면서 하나의 순환 고리로 나아가는 <Look I>의 작업에서 보듯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실체인 것이다. 자신만의 견고한 성으로 둘러쌓아 놓은 것과도 같은 문명도 그에게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서서히 마모되어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는 시멘트로 만든 전봇대와도 같은 운명을 지닌 것이며, 전기 애자의 전선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파편화된 하이힐의 조각들과 현재의 문명을 상징하는 전기 애자 또한 그러한 필연의 선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명이란 작가에게 <다중 감각>의 신발들과 같이 하이힐과 구두를 층층이 번갈아가며 쌓아 올린 것과 같은 것이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며, <속살-Inner mass>의 신발과도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한 성과 같아 보이지만 한겨울을 벗겨보면 연약한 실핏줄과도 같은 구조인 것이다.

구두와 하이힐은 그에게 <우리들의 인상>에서 보듯이 고희와 같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며, 또한 서로를 거울과 같이 반영함으로써만 작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체와 짝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짝은 인간 존재로만 견고하게 성을 쌓아 놓고 찾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clayzoo>나 <신성한 파편>과도 같이 구두와 하이힐을 다양한 형태들로 변형시키듯이 그렇게 인간의 존재 또한 자연의 여타의 존재들로 변형

될 수 있음을 열어놓음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그는 흙으로부터 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구성물을 만들고 그 구성물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그것이 나온 것으로 환원시키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부표와 같이 떠돌던 인간의 감각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며, 문명이라는 이름아래 인간 실존의 근원적 고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조관용(미학, 미술비평)